



프랑스에서 145년 만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24일부터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23일 전시관 입구 대형 벽면(가로 13.6m×세로 3.8m)을 통해 66세 영조가 15살 정순왕후를 새 옷비로 맞이하는 의식을 다룬 '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45년만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광주 특별전

첫 지방 나들이...51점 국내 처음 공개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145년 만에 프랑스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儀軌)가 드디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공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4일부터 6월 24일까지 두 달간 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145년 만에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를 지역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특별전을 연다. <관련기사 12면> 특히 반환 이후 지난해 7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외규장각 의궤 51점이 국내 최초로 전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현종국장도감의궤·효종국장도감

의궤·선의왕후헌전도감의궤 등 외규장각 의궤 51점과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궤·관련 유물 등을 포함해 모두 109점이 선을 보인다. 외규장각 의궤 297권은 지난 1866년 프랑스가 강화도를 약탈하면서 가져간 것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5년 단위의 임대 방식에 의한 반환에 합의하면서 145년만인 지난해 4월 반환받았다. 조현종 광주국립광주박물관장은 "의궤는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었지만 외규장각은 왕실의 부속기관인 만큼 의궤의 지방 나들이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첫 전시 도시로 광주가 결정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제1만

광주·전남 다시 시작하자

해 시민사회

시민단체, '열린 사회' 새 역할 찾아라

순수성 잃고 권력집단 변질 시민 외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광주지역 시민사회진영이 '열린 사회'에 맞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및 정책 검증은 물론 각 정당에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식물' 시민단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전직 동장 자살사건으로 불법선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 동구에 출마한 시민사회진영 후보가 받아들여지지 못한 성적표는 지난 2000년 이후 제기된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며 자리매김한 지역 시민사회진영

이 교육·문화·복지·여성 등 다양해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것이 시민단체 체제의 첫 번째 이유로 손꼽히고 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다가가지 못하고 '구호'에만 머물면서 시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이들이 위탁하는 시설 운영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회원이 내는 회비로 운영이 어렵게 되면서부터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의 회비는 일반회원의 경우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실제 500명 이상의 진성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등 5~6곳에 불과하다. '순수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시

민단체가 스스로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즉 비정부기구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위탁비를 단체 운영비로 쓰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 지급이나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정부·지자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된 비영리 기구, NPO(Non-Profit Organization)와 같이 지역 시민단체들이 '쓰레기 재사용', '대중교통 이용하기', '골목길 청소', '독거노인 돌보기' 등 작은 부문을 특화해 실천하면서 시민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소수의 단체 임원들이 장기간 단체를 운영하고 '시민단체 대표'라는 명칭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또 다른 형

태의 권력집단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일부 시민단체 대표는 광주시 산하 3~4곳 위원회에 위원으로 수년간 참여하고 있지만 '대표성'을 띠지 못해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이 그동안 쌓은 명성을 발판으로 정계 또는 지자체에 진출하는 것도 시민단체의 순수성에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윤장현(61) 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은 "시민단체가 자신과 상관없는 분야까지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나열하고 사안마다 공동 대응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잃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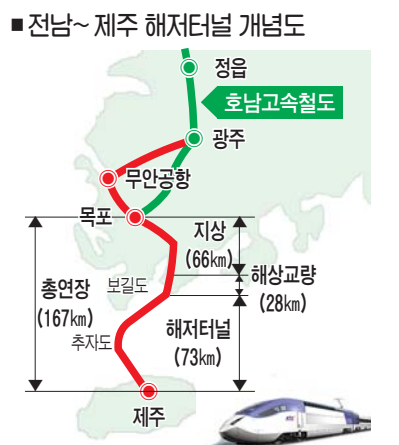
총선후 한다면 전남~제주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발표 또 연기

대선정국 정치권 눈치보기?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노선 문제 장기화

해를 넘긴 전남~제주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발표가 최근 치러진 4·11 총선과 연달 대통령선거 등 요동치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또 다시 지연될 조짐이다. 인천~중국 해저터널에 관심을 보여 여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대권 출마를 발표했고,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본 해저터널이 다시 거론되면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여부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무안공항과 나주 중 어느 곳을 경유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호남고속철(KTX) 광주~목포 간 노선 문제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5월 한국교통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지난해 연말까지 연기한 뒤 올해 들어서도 총선 이후로 다시 미뤘다. 하지만 국토부는 총선이 끝난 뒤에 또 여대섯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

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공약에 해저터널이 포함될 경우를 우려해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다. 일부 대권 후보들이 인천~중국이나 부산~일본 해저터널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경우에 따라 엇박자를 낼 수도 있는 전남~제주 해저터널 타당성 결과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제주 해저터널은 보길도~추자도~제주도(73km)는 해저로 연결하고, 목포~해남(66km)은 지상, 해남~보길도(28km)는 해상으로 있는 총연장 167km에 이르는 고속철도다. 사업 기간은 11년, 사업비는 14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남~제주 해저터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KTX 광주~목포간 노선의 경우지도 장기적으로 해저터널 이용에 도움을 주는 무안공항으로 결정할 계획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토부는 인천~중국, 부산~일본 해저터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의 출마에 따른 기대 심리로 해저터널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 등 경남지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본 해저터널 건설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Korea Be Inspired
국내외에 한국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방문의 해 브랜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강진청자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의 2,000여개의 축제 중 2개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홍보와 축제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강진청자축제

The 40th Gangjin Celadon Festival

2012. 7.28(토) - 8.5(일)

전라남도 강진군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보해양조주식회사, 남원문화재단,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강진청자축제는 강진군이 개최하는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 (2012.7.27~8.2)와 연계 개최됩니다. 두 축제장 간에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은 대한민국 축제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http://gangjinfes.or.kr
1688-1305